지역 메아리

정읍시, 라벤더 허브원과 농업관광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가 7일 정읍라벤더 허브원(대표 이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라벤더 허브원은 구룡동 약 33만㎡ 부지에 약 9만9천㎡ 규모의 라벤더를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중이다. 이에 시는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 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협약에는 유진섭 시장과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원 대표를 비롯해 라벤더 허브 조성 등에 관련된 4개 부서의 과·소장이 참석했다.

시와 정읍라벤더 허브원은 농업관광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공유하고 허브원이 조성한 부지와 기타 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특히, 시는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협력사업과 농업·관광정책 개발 과 운영을 위해 내실있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정읍라벤더 허브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라벤더의 가치를 꾸준히 홍보해 라벤더 테마 마을로 다시 태어나 농촌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원 대표는 "시에서 필요한 농업, 관광, 축제에 대해 조성된 부지와 기타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굿피플 인터내셔널 전북지부 정읍 저소득층 위해 계란 지원

(사)굿피플 인터내셔널 전북지부(지부장 유영준)는 7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계란을 후원했다.

굿피플은 1200만 원 상당의 계란 3000판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굿피플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과 사랑의 자장면 봉사, 취약계층 이동 무료급식 지원 등 남다른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계란 3000판을 읍면동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며 "도와주신 따뜻한 마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영준 지부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따뜻한 손길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사)굿피플 인터내셔널은 지난 9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함께 돕자는 취지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상생발전 위해 모두 한마음

고창 파머스빌리지서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열려
과거사 진상규명 법률개정 촉구 등 주요 안건 논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7일 고창군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에서 도내 14명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2차년도 제2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진사항과 각 시군별 주요 안건 및 홍보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창에서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도내 시장·군수님이 한 자리에 모여 전라북도와 시군발전을 논의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영사에서 "천년 먹거리인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의 숲을 걸고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웃한 시장·군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보전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들 안건은 논의를 거쳐 전북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별 상호 홍보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협조논의도 이뤄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전주 제14회 국제탄소페스티벌 △정읍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마라톤대회 △김제농업기계 박람회 개최△임실 제4회 아삭아삭김장페스티벌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특별전 △제17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 △제10회 부안설숭어축제 등 지역별 축제 홍보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추진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재추진 방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소송 등 대응, 공공부문 내 근로자(공무직)관리규정 제정 촉구 지원 등의 내용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회의가 진행된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는 최근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곳이다. 야생화가 피어나고 자연 초목이 가득한 언덕 위에 농부가 편안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테마로 삼았다.

상하농원은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약 33만명이 찾고 있으며 지역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민관이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군청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청람진묵회와 부안성당 성심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어르신의 꿈을 다시 펼치는 아름다운 시간

부안군청서 청람진묵회 · 성심평생학습관 작품전시회 열려

부안군은 군청 1층 로비 작은 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서예교실인 청람진묵회(회장 장영기) 회원 작품 30여점과 부안성당 성심평생학습관 수강생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서체로 된 한시와 애국가 등 오랜 세월 깊은 성찰이 묻어나는 서예작품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아름다운 일상을 담은 종이공예, 시화, 캘리그라피 등 어르신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선보인다.

지난 1998년 서예 대중화를 목표로 시작된 청람진묵회는 평소 전시회 개최, 지역행사 자원봉사로 무료가훈써주기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근 그동안의 기량을 엮은 제5회 서예작품집을 발간했다.

성심평생학습관은 지난 2016년 개교해 올해로 4년째 운영 중이며 교육과정으로는 문예, 건강체조, 노래,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60여명의 어르신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장영기 청람진묵회 회장은 "군민이 제일 많이 찾는 관공서인 군청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건규 성심평생학습관 학장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접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꿈을 다시 펼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래 지향적 전략사업 공유한다

정읍시,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보고 · 대토론회 개최

정읍시는 최근 미래지향적인 비전 수립과 지속적 성장대응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정읍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보고 및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와 연구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신성장동력 발전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정읍시 대응 방향 ▲지역 경관 및 도시재생을 위한 통합마스터플랜의 이해와 사례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제시 등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연구원 송유경 지역정책실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동향과 함께 중앙정부의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심경미 연구위원은 지역을 하나의 관리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구상한 전략계획인 통합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한 활용사례를 설명하면서 비효율적 공공건축과 공공공간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의 장성화 책임연구위원은 정읍 신성장동력 5개 분야(도시·지역개발, 농산촌, 산업육성, 관광브랜드, 도로 기반시설) 사업 발굴에 대해 전략과제의 세부내용 등을 설명한 후 직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유진섭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원칙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결국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이번에 제시된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극 대응과 지역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전북연구원과 정읍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농식품산업 기여방안 모색

고창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 군수)가 최근 고창군청 5층 회의실에서 '지역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 기여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선 하동녹차연구소 김종철 소장이 지방자체단체 출연 연구소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 전북대학교병원 채수완 교수가 기능성 식품 임상지원센터의 역할과 연구소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 조성욱 연구소장이 내년 연구소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채수완 교수(전북대학교 의과대학)는 "100세 시대 건강은 라이프스타일 개선(식이치료)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복분자와 수박 등 지역특화소재(신선식품)를 활용한 건강 기능식품 및 메디컬 푸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석 교수(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도 "국내 최초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의 청정자연에서 자란 복분자, 땅콩, 고구마, 수박 등 지역 향토자원을 이용해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기능성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바다영어종합법인 김종학 대표는 "현재 고창군에 100개 식품기업이 있는데 자가품질검사를 전주, 광주 등 타 지역에 의뢰하고 있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고 언급하고,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도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적절한 가격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식품 기업과 연구소간 연구 스터디 그룹 운영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 공부하고 현장에 맞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농식품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유기상 이사장(고창군수)은 "연구소가 고창군의 농생명 식품 분야의 핵심기관으로서 농식품 업체의 손발이 되어 고창군 농생명 식품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